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 시동

군, 추진 상황 보고회 갖고 현장 점검·종합계획 공유하며 발전 방안 논의

무주군은 지난 23일 예체문화관 2층 전시관에서 황인홍 무주군수와 지원단, 박찬주 무주반딧불축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29회 축제의 종합계획을 공유하고 달라진 점과 신규 도입 프로그램 및 시설, 분야별 추진 상황 등을 살피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축제현장 점검도 병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친환경축제로 29년의 역사를 지켜온 무주반딧불축제의 저력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때"라며 "올해도 3무(無) 축제를 기조로 기후변화 속에서 대안이 되는 축제, 세계인들이 함께 즐기는 친환경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자"라고 강조했다.

무주군은 지난 23일 예체문화관 2층 전시관에서 황인홍 무주군수와 지원단, 박찬주 무주반딧불축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는 9월 6일부터 14일까지 무주군 일원(등나무운동장, 지남공원, 남대천변 등)에서 개최되며, "자연특별시 무주로의 힐링여행"을 주제로 9일간 체험·환경탐사·문화예술·주간경관·야간조명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바가지요금·일회용품·안전사고 없는 3무(無) 축제'를 기본으로 무주반딧불축제의 정체성과 의미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반딧불이 주제관', '반딧불이 신비탐사' 등 환경탐사, '1박2일 생태체험 반디별 소풍', '남대천 생명플러스(치어방류 & 소원지 띄우기)' 등이 펼쳐지며 올해는 문화예술인 페스티벌, 무주천마 전국 요리 경진대회, 반딧불이가요제, 반딧불창작가요제 등이 신설되며 음악분수와 함께 선보이는 한밤중 '멀티미디어 쇼 in 무주(별빛다리 카운트다운 및 파사드 & 음악분수 & 낙화놀이 & 레이저쇼 & 불꽃놀이)'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스마트팜은 무주 농업 미래"

황인홍 군수, 스마트팜 원예단지 추진 상황 점검

무주군이 기후변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무풍면 증산리 일원에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 중인 가운데 황인홍 무주군수가 24일 원예단지 기반조성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직접 챙겼다.

현장에는 총사업비 95억 원이 투입돼 2026년까지 용수·전기·통신·도로 등 스마트팜 운영을 위한 핵심 기반 인프라 시설이 구축될 예정으로, 황 군수는 이날 공사 진행과 안전 및 온열질환 예방, 스마트팜 적용 계획, 그리고 향후 운영 방안 등을 촘촘하게 확인했다.

이어 시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 관계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예산 집행 적정성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스마트팜은 무주 농업의 미래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핵심축이 될 것"이라며 "완공 이후에는 ICT 기반의 자동화 농업시설이 도입돼 노동력 절감은 물론, 생산성 향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은 2027년까지 6.1ha 규모에 232억여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기반 조성과 경영실습장, 육묘장 등을 조성하고 임대 농장 4동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가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스마트팜단지 입주 지원센터와 전문교육장, 스마트팜 전망 공간 등은 기존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내 시설을 활용할 예정이다.

무주군은 올해 말까지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과 임대형 온실(육묘장 1동 포함) 조성을 마무리하고 경영실습 농업인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외 저탄소 공동이용시설 지원 사업(지열시스템)을 추진해 경영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고원 명품 수박' 본격 출하

전춘성 군수,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수박선별장 현장 점검

최고의 품질과 높은 당도를 자랑하는 진안고원 명품 수박이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했다.

진안군의 여름철 대표 농산물인 수박은 4~5월 식재되어 비가림 터널재배를 거쳐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본격적인 성 출하기를 맞는다.

이에 전춘성 군수는 24일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수박선별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성 출하기에 앞서 선별장을 찾은 수박 재배 농가들과 의견을 나누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안군 수박 재배면적은 총 197ha로(농림사업정보시스템 기준) 이 중 진안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최종진)을 통해 약 4,500톤(176농가, 126ha)의 수박이 출하될 전망이다.

진안 수박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철저한 선별과정을 거쳐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쿠팡, 도매시장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홍삼축제 실무추진단 1차 보고회 가져

진안군은 24일 군청 강당에서 오는 9월 26일에서 28일까지 마이산 북부에서 펼쳐지는 '2025 진안홍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실무추진단 1차 보고회 자리를 가졌다.

주영환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은 각 실과소 팀장 및 부읍·면장 51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성공적인 홍삼축제 진행을 위해 담당 프로그램의 계획 수립부터 진행까지 책임지고 운영하게 된다.

보고회에서는 프로그램별 추진계획 발표와 함께 이전 민원 사항과 발생 가능한 예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홍삼축제 방문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도 오갔다.

실무추진단은 진안홍삼축제가 두 달여 남은 시점에서 모든 부서가 협력하고 노력하여 대한민국 대표 건강 축제로서의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뜻을 모았고 방문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짐도 함께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의회,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미국산 사과 수입 반대' 앞장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24일, 제292차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제출한 '인구소멸지역 화폐 사용처 확대 촉구 건의안'과 '미국산 사과 수입 반대 결의안'이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월례회는 장수군의회가 주관했으며, 도내 시·군의회 의장들이 장수청소년꿈터달빛에 모여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지방의회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장수군의회는 '인구소멸지역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건의안'을 통해 장수군을 비롯한 인구소멸지역의 협소한 상권으로 인해 대부분의 생필품과 농업자재 구매가 대형 매장 한 곳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사업장에서도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미국산 사과 수입 반대 결의안'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전면 철회를 주장하며, 사과 주산지에 대한 과수산업 보호 대책과 조속한 가격 안정 장치 마련 등 농민 생존권 보장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 '분리배출 우수마을' 21개소 선정 추진

장수군은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분리배출 우수마을 선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분리배출 우수마을'은 올 한 해 분리배출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한 마을을 선정하여 주민의 분리배출 의욕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마을 주도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장수군은 총 218개 마을을 대상으로 각 읍·면별 3개소씩 가장 높은 점수를 득한 21개 '분리배출 우수마을'을 선정해 연말에 시상할 계획이다.

평가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진행되며, △품목별 재활용품 분리배출 상태, △생활쓰레기 적정 배출 여부(종량제 봉투 사용), △마을 주민들의 참여도, △배출지역 청결 상태 등을 종합해 최종 점수를 산정한다.

최종 선정된 우수마을 21개소에는 마을당 30만 원의 장수사랑상품권이 지급되며, 마을 입구에는 현판이 설치될 예정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번암물빛축제 일부 프로그램 축소·취소

장수군 번암물빛축제위원회(위원장 소순배)는 2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예정된 '제9회 번암물빛축제'의 일부 프로그램을 축소·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애도 분위기에 동참하고 군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추진됐다.

축제위원회는 논의 끝에 △공연 및 무대행사 일부 취소 △축하공연 축소 △불꽃놀이 전면 취소 등 흥겨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프로그램을 자제하기로 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화합 차원에서 마련된 체험 프로그램과 먹거리 부스는 간소하게 운영되며, 방문객들에게 위로와 공동체의 따뜻함을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의회, 김민규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통과

진안군의회 김민규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됨에 따라, 그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와 함께, 지원 대상 단체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훈 사업 지원의 일관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높이고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민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명칭 정비를 넘어,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 가능한 보훈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와 지역을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